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38-1801)



홍교만은 한양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그도 40세에 진사가 되었다. 고종사촌 권일신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처음 알게 된 그는 아들 홍인에게 교리를 자세히 들은 뒤, 그것이 자신이 찾던 진리라는 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그에게 세례를 받고는 천주교 교리를 전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포천 지역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은 그의 열성 덕분이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홍교만은 사둔 정약종의 천주교 책 상자를 맡았다가 이것이 발각되면서 아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리고 온갖 문초와 형벌 속에서 천주교 교리가 진리임을 설명하였다. “하느님은 천지의 큰 부모가 되시니, 어찌 큰 부모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또 큰 부모를 섬기는 천주교를 감히 사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천하의 진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끝내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4월 8일, 그의 나이 63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17주일 · 조부모와 노인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8(67), 6-7, 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창세 18, 20-32

화답송

시편 138(137), 1과 2, 2-7과 3, 6-7과 4, 7-8(◎ 3가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섰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고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

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십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골로 2, 12-14

복음 환호송

로마 8, 15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루카 11, 1-13

영성체송

시편 103(102),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중재 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롯의 아내' 바위

오늘 제1독서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느님께 중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협상하여 소돔에 의인이 열 명이라도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어이 받아냅니다. 물론 그 열 명이 없어 소돔은 종말을 맞게 되지만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서 롯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은 것 역시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아 자비를 베푸신 것이었으니(창세 19,29), 흠 없고 도덕적인 이의 중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움에 있어 롯과 매우 대비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그곳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만, 롯은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두 처녀 딸을 희생시키려 합니다(19,8). 자기 지붕 밑의 손님을 보호하려고 소돔인들에게 딸을 대신 희생양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성서 시대 여인들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등(탈출 21,7) 재산처럼 여겨졌고, 고대근동인들은 자기 지붕 밑에 거하는 손님을 보호하는 일을 명예가 걸린 임무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심분 고려한다 해도, 제 명예를 위해 친딸을 위험에 빠뜨린 행동은 너무나 비정해 보입니다.

다만 베드로 2서에 나오는 롯에 대한 평가는 이와 상반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

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 롯은 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의인은 …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듣느라고 …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2,6-8). 의로운 롯이 소돔의 악을 견디느라 괴로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 19장에 묘사된 롯의 모습과 모순되게 보이지만, 이는 상대적 평가입니다. 곧 소돔인들에 비해 롯이 의로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테면, 에제 16,51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마리아는 네(예루살렘)가 지은 죄의 반만큼도 죄짓지 않았다. … 네가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짓으로, 너의 자매들이 오히려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롯은 소돔인들처럼 폭력을 행사하지도, 악의를 품고 약자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자인 나그네 손님을 보호하려고 판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범으로 여겨질 의로운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 그는 세태에 오락가락 흔들리기 쉬운 범부였던 셈입니다.

예부터 아브라함처럼 예언자들이 바치는 중재 기도는 재앙을 내리시려는 하느님의 마음을 돌리곤 하였습니다(탈출 32,11-14 등).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구제불능이라 죄값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땐, 하느님께서 중재 기도를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예레 7,16 등). 중재 기도는 오늘날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구하는 관습으로 발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중재 기도를 막으신 경우도 있었음을 상기하며, 이런 전구 역시 우리 회개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하느님 백성의 예언자직

「교회헌장」 제12항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합니다. 「교회헌장」 제12항은 하느님 백성의 예언자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앙 감각'(sensus fidei)과 '은사들'(charismata)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느님 백성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느님께 "찬양제물"(히브 13,15)로 바칩니다. 하느님 백성의 예언자직 수행은 그 백성의 무류성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1요한 2,20)라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은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무류성은 '신앙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공의회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빌려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 동의를 보이면 온 백성의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의 중개로 무류성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일깨우는 성령의 작용으로 주어지는 신앙 감각은 본성적인 것이며 신앙에 정통합니다. 하느님 백성이 이 신앙 감각을 통해서 교도권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1테살 2,13)라는 말씀은 신앙이 어떤 역사적 중개를 통해서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증언하는 중개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더 깊이 깨달으며, 그 믿음을 생활에 적용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하느님 백성의 모든 신자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교회를 쇄신하고 건설하는 데에 유익한 활동이나 직무를 맡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의 신학은 은사들을 이례적인 신비 현상으로만 다루고,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은총의 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들이 교회의 직무와 함께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은사들은 그것이 뛰어난 것이든 단순하고 널리 퍼진 것이든, 교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혹 특별한 은총을 함부로 청하거나, 그러한 은총에서 사도직 활동의 결실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은사의 식별은 교회

직무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좋은 것을 붙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은 은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직(봉사직무)도 수행합니다. ●



‘성모 승천’에 대한 신앙은 신학이 정립되기 이전에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 백성 안에 있었다. 티치아노, 〈성모 승천〉(부분), 1515~1518년,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대성당 (베네치아)

태산이 어찌 어린양이 될 수 있는지요

해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되면, 한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요한 21,18). 지금 제 친정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용기백배로 살아온 분이지요. 그런데 취장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얼마 전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호스피스 병실에 입원 후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평생 알코홀릭으로 당신 뜻대로만 살던 분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가 된 겁니다.

입원하기 전, 집에서 병자 영성체를 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이 방문한다는 말에 아버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끼는 모시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엄마가 입혀 주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구 교우집안에서 자라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엄마와 제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라도 할라치면, “성당에 다니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타박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병자 영성체하는 날이라며 하느님을 기다리듯 신부님을 기다리다니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깊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생 술을 드시고 가족을 힘들게 했던 모습만을 기억하며 고해성사도 길게 봐야 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의 고해성사는 금세 끝났습니다. 신부님은 한술 더 떠서 “아버님께서 고해성사를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며 두 번이나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희는 그럴 리가 없다고, 평생 술 드

신 것만 해도 죄를 고할 게 많을 거라며 반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와 우리의 인간적 판단이 다르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본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제게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위압적인 태산처럼 언제나 큰 존재였습니다. 세 살 때 친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평생을 술에 의지하며 외롭게 사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거라곤 자기 주먹뿐이라며 뒤편 악착같이 제 길을 헤쳐 나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 뜻이 곧 진리였고, 가족은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고해성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느님을 천주님이라고 부르며 어려울 때마다 “천주님이 날 살리셨네.” 하신 아버지의 믿음이 새롭게 와 닿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고해성사 봤으니 다 해결됐어. 그래, 다 됐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간에 주고받은 상처와 원망의 매듭이 많았던 겁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리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기처럼 약한 존재가 되어 자신의 허리띠를 매어 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아빠를 보면서 태산이 어찌 이리 온순한 어린양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내가 멋모르고 살았다. 멋모르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삶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천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마감하시길 빕니다. 천주님께서 손수 아버지의 허리띠를 매어 주시어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



교구 소식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8/1(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8/3(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전시] 의정부가톨릭미술가회 신입회원전

일시 8/2(토)~22(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제36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8/29(금) 19시 ~ 31(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8 가정사목부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9월 (대침묵 피정)

일시 9/19(금) 16시 ~ 21(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지도 이종경 비오 신부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9/13(토)~14(주일) [1박], 9/26(금)~28(주일) [2박], 10/17(금)~19(주일) [2박], 11/7(금)~9(주일) [2박]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1박] 8만원, [2박] 15만원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순교자공경 성가대 단원 모집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시편 69,31)

Misterium Fidei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이신 성모님과 순교자를 공경하며

순교 성지에서 봉사하고 순교 신심을 함양하는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첫째·둘째주: 양주순교성지 봉사 / 셋째주: 전국 성지 순회 봉사 / 마지막주: 휴식

문의 010-7102-3423 최민호 마르코 신부,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안내 ▶



전신자 성경 읽기 7/27(주일)~8/2(토) : 요한 12,37-50



8/30(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특별헌금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지난 6월 22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특별헌금으로 123,456,45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민족화해위원회로 보내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피정

일시: 7/28(월) 13:40 /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이규섭 스테파노 신부

(5지구 성령지도, 5지구장)

내용: 강의와 안수 / 문의: 010-8917-0090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8/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환경의 치유와 유혹을 피하려면

강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 (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2127-0032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8/4(월)~7(목), 8/28(목)~31(주일)

성경완독: 8/15(금)~23(토), 9/19(금)~27(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여름피정(우도섬포함): 8/11(월)~13(수),

8/15(금)~18(월), 8/21(목)~23(토)

제주성지순례(추라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0/25(토)~28(화)

자연순례: 9/1(월)~3(수), 10/2(목)~4(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2박3일:

8/8(금)~10(주일), 8/22(금)~24(주일)

영신수련 2박3일: 9/19(금)~21(주일)

하루생태피정 숲: 9/26(금)

내안의 생명력 되찾기 피정 1박2일: 9/20(토)~21(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예수마음배움터

※ 자세한 내용은 www.jesumaum.org 참조

착한의견의 성모 피정집

소규모 단체 자체, 위탁, 개인피정

수도원 일과에 자유롭게 참여

장소: 연천 착한의견의 성모수도원

문의: 031-834-1262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9/25(목) 17시~28(주일) 16시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집

지도: 김연수 신부 (예수회)

회비: 30만원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첫토요 성모신심 미사

일시: 8/2(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8/1(금) 16시 (성시간 15시)

19:30 (성시간 18: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16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가정선교회 8월 피정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8/2(토) 김경진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8/6(수) 윤민재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8/16(토) 김경진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6:5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사제·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말씀 성가정 피정: 8/8(금)~10(주일)

우도: 8/16(토)~18(월), 8/23(토)~25(월)

생태순례: 9/15(월)~17(수), 9/26(금)~28(주일),

10/1(수)~3(금), 10/12(주일)~14(화),

10/27(월)~29(수)

성지순례(추라도): 9/9(화)~12(금),

10/16(목)~19(주일), 11/22(토)~25(화)

장소: 제주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사별가족 1일 피정

일시: 8/5(화) 10시~16시

대상: 남편 사별하신 분

장소: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별내동)

문의: 010-8985-9971



교육 · 모집 ▶▶

마석 성당 교종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주일 11시 교종미사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전공자

서류: 자원봉사신청서, 이력서, 교적증명서

접수: 이메일 kth0643@uca.or.kr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8368-5645 성가대 단장

031-593-4231 사무실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길음동 성당 성령기도회 치유영성강좌

일시: 매주(화) 19시 미사 후, 소성당 (길음역 3번출구)

7/29 김영신 안나, 8/5 박희전 루게시오 신부,

8/12 김현우 바오로, 8/19 정성숙 마리아,

8/26 구본홍 이나시오 신부

문의: 010-9248-8151 (말씀, 안수)

관산동 성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인 교우,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PPT) 사용 가능자

근무: 주40시간 (토·주일 근무, 주중 2일 휴무 - 추후 협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급여: 의정부교구 인사·급여 규정에 따름

채용: 1차 서류, 2차 면접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 7/29(화)까지, 방문 및 우편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966번길 38 관산동성당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하는 프로그램 [10일, 100만원]

날짜: 9/15(월)~24(수), 10/13(월)~22(수),

11/17(월)~26(수), 12/8(월)~17(수)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문의: 010-7451-9707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프로그램

전인적 치유 피정: 7/30(수) 10시~17시 (점심 제공)

강사: 한연흠 신부, 한영임 회장

성경통독 & 길잡이 맥도형틀 (마인드맵)

내용: 도형틀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함(교재2만원, 등록1만원)

창세기: 9/1부터 매주(월) / 마르코: 매주(수)

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18시~20시

장소: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

문의: 010-3248-9705, 유튜브 '지혜의샘 북방'

평내 성당 관리장 모집

인원: 1명 (계약직 1년, 근무평정 후 정규직전환)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인 교우

업무: 시설관리, 미화, 방호업무, 문단속

근무: 주40시간 내외 (주말근무 포함, 주중 1일 휴무)

제출: 이력서, 교적증명서, 주민신부님추천서, 자격증사본

접수: 7/31(목)까지, 우편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56번길 17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전화문의 사절

마리아학교 9월 학기 수강자 모집

일시: 9/2~2/28, 매주(화) 14시~16시 [대면반]

9/4~2/28, 매주(목) 20시~22시 [온라인반]

장소: 가톨릭회관 205호

내용: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움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6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 (*만 30세 이상)
접수: 9/8(월)~12(금) 인터넷접수
면접: 10/31(금)
문의: 02-740-9704, 9705
<https://songsin.catholic.ac.kr>

안내 · 기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0(월) 히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17(월)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사별 가족 회복 프로그램 <위로의 샘>

일시: 10/17~12/5, 매주(금) 14시~17시 [총8회]
장소: 황사영순교순례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대상: 사별의 상실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
문의: 010-9056-2344 서성자 아네스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2(월)~25(목) 일본 나가사키 (140만원)
10/14(화)~24(금) 동부 유럽 4개국 (510만원)
10/16(목)~27(월) 유럽 성모발현지 (510만원)
11/10(월)~21(금) 멕시코, 페루 (795만원)
문의: 02-2281-9070

멕시코 성지순례 - 10박11일

11/25(화) 성모발현지 과달루페, 칸쿤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11/12(수) 이탈리아 (11일, 국적기직항)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1/21(금) 이탈리아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이태리 정기히년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회원특집 해외 성지순례
9/20(토)~10/1(수) 동유럽 4개국 성지 (KE)
10/7(화)~16(목) <추석 특집> 영국, 아일랜드 (KE)
10/9(목)~30(토) 루르드, 파티마 성모발현지와 유럽 3개국 (KE)
10/13(월)~30(목) <사도바오로> 튀르키예, 그리스 (TK)
10/22(수)~11/1(토) 이탈리아 (KE)
10/24(금)~27(월) 일본 오사카, 교토, 쇼도시마 (KE)
10/29(수)~11/8(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메주고리에 (KE)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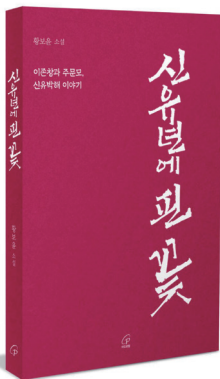
출발: 9/21(주일), 비용: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신부님동행)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개장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날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황보윤 | 344면 | 15,000원

바오로딸

문의 | 031-850-1533, 02-944-0944

이존창과 주문모, 신유박해 이야기

신유년에 핀 꽃**기억하게. 새로 나지 않으면 꽃도 없고 열매도 없네.**

“역사책에 건조한 문장으로 기록된 단편적인 사실을 다채로운 소설적 상상력으로 재현한 문장들이 인상적이다. 또한 신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따라간 것도 눈에 띈다. 그들의 마음은 연약하며, 미약한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 흔들린다는 건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자체가 바로 길이다. 의심과 회의의 과정 없이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신앙은 그런 길의 끝에서 완성된다. 한국 가톨릭의 여명기를 이끈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_ 김연수 소설가

신/간/소/개

영성체 (Communio) ②

미사 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공복재(또는 공심재)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복재(空腹齋)는 영성체 한 시간 전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는 걸 말합니다. 단, 물과 약은 허용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영성체를 위한 준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한 공복재를 지켜야 한다. 몸가짐(행동, 복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나타내야 한다”(1387항).

한편, 초대교회부터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은 특별한 장애가 없으면 모두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4세기에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이단에 맞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체와 성혈이 지존하신 하느님의 몸과 피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교우들은 강한 경외심으로 차츰 영성체를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체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는 모든 신자에게 최소 매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DS 812). 현행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영성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제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바로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로 주님의 몸을 ... 모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85항). 따라서 대죄가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영성체를 기피하는 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체는 본인이 참여한 미사에 한하여 최대 하루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사 때 교우들은 대부분 성혈 없이 성체만 모시는 단형 영성체를 합니다. 그런데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영성체는 성체와 성혈 양형으로 할 때에 한층 더 완전한 모습을 갖춘다.”(281항)라며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형상만의 영성체로도 그리스도를 참된 성사로, 온전하게, 그리고 모두 다 모시는 것이므로 영성체의 효과와 관련하여 오직 한 가지 형상만으로 영성체를 한 이들도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는 데 아무런 결함이 없다”(282항)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사제와 교우들이 성체를 영하는 동안 공동체는 영성체 노래를 부릅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은 영성체 노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영성체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목소리를 모아 영성체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 더 밝혀준다. 이 노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동안 계속하여 부른다”(86항). “그러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 경본」에 제시된 영성체송을 신자들 모두 또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87항). 이렇듯 영성체 중에는 영성체 노래를 부르는데, 때로는 영성체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 노래를 부른다면, 보통 영성체송은 생략합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상시, 사무실 문의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9일 마르타: 김학순, 이경예
라자로: 김순곤

- 8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류기정 베드로, 이덕희 데레사, 한언년 마리아
이현택 안토니오, 황아레 아네스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8월 6일 수요일 11시

전례

- 8월 성시간
일 시 : 8월 1일 금요일 오후 15:00

- 8월 성모신심 미사
일 시 : 8월 2일 토요일 오전 11:00

공 지 / 단 체

- 8월 병자영성체
8월 병자영성체는 쉽니다.
- 7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 7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여름철 본당 미사 시간 냉방 안내
여름철 본당 미사 시간에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겉옷을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행주 성당 전대사 미사 안내
교황직할 성모대성전 주보 축일
일 시: 8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안수예식 있습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7월 27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김남일 미카엘, 배현숙 헬레나	
8월 03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김순곤 라자로, 이경예 마르타	

우리들의 정성 (7/14 - 7/20)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5건 620,000원
주 일 헌 금 875,000원
농민 주일 2차 헌금 408,000원

- 보도블록 교체 헌금 5,500,000원
추교윤 시몬 신부님 5,000,000원
배성은 소사아가다 100,000원
유승태 보니파시오 300,000원
배현숙 헬레나 100,000원

7/14부터 7/20까지 사무실에 납부한 내용입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모순례지 후원금 400,000원
초봉헌 400,000원

- 금주의 복음 말씀 -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화답송



(후렴) 주 님, 제 가 부 르 쏘 트 던 날, 당 신 은 응 답 하 셧 나 이 다.